

瘙癢의 病因·病機에 대한 연구

박승림¹ · 강정수^{1*}

Study about the Cause and Mechanism of the Itching

Park Seung-Lim¹ · Kang Jung-Soo^{1*}

¹Dept. of Physi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After studying the cause and mechanism of the itching with the perspective of chronic medical books including *Neijing*, and the annotator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he itching, which has correlation with the heart, is the deficiency symptom(虛症). It is generated when the lung-metal(肺金) is infected by the fire pathogen(火邪) and developed to depression(鬱), because of the heart fire flaming upward of circuit year(歲火太過). The treatment is to make metal depression scatter(金鬱泄之).

2. The itching occurs between the dermis(膚) and the epidermis(皮).

3. The itching generates when the excess of yang exuberance(熱盛極) precede the transmission of the wind-heats(風熱), the wind-cold(風寒), and the wind-dampness(風濕). It causes the blood deficiency(血虛) and the blood stasis(血瘀) because of the skin dryness.

4. The itching usually generates during summer, causes the body fever(身熱) and the dermis pain(膚痛). When it becomes worse, it causes generalized itching and vesicles at the whole body(浸淫).

5. The itching is related to the spirit(魄), which works in unconsciousness and the movement of defense qi(衛氣) in night.

Key words : itching, dermis(膚), defense qi(衛氣), blood deficiency(血虛), depression(鬱).

I. 서론

瘙癢은 처음에는 옴[疥] 같으나 긁으면 진물이 나서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¹⁾, 피부를 긁고 문지

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불유쾌한 감각이며²⁾, 아토피피부염을 포함한 습진성 피부염, 두드러기, 물집피부염, 옴, 편평태선 등 다양한 피부질환에 동반되어 나타나며 당뇨병, 담도폐쇄성질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E-mail : omdkjs@dju.kr
투고일 : 2013년 7월16일 수정일 : 2013년 7월19일
게재일 : 2013년 7월22일

1)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p.321, 1993. “搔痒者, 初如疥, 搔之轉生汁, 相連者是也.”
2) Reich A, Ständer S, Szepietowski JC. Pruritus in the elderly. Clin Dermatol, 29:15-23, 2011.

환, Hodgkin 림프종, 균상식육종, 백혈병, 진성적 혈구증가증 등 여러 진신질환에도 동반될 수 있다³⁾.

피부소양증은 기질적인 피부 병변없이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내과적 질환의 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동반하는 피부질환은 아토피성피부염, 습진, 담마진 등 알레르기성 질환이 많다⁴⁾.

痒은 魄이 認知하는 自覺感覺이고, 『素問至眞要大論』⁵⁾ 病機 19條에 “모든 痛·痒·瘡은 心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諸病源候論』⁶⁾에서 風瘙隱軫生瘡候, 風瘙痒候, 風痒候, 虛勞陰下痒候, 穀道痒候 등에서 瘙痒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신 등⁷⁾은 濕熱風熱 등으로 인해 皮膚가 건조해지거나, 衛氣가 虛했을 때 風邪가 침입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瘙痒은 건강을 심각하게 危害하는 증상은 아니지만, 외관상 보이는 피부 병변 이외에도 삶의 질 저하 및 우울증 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치료가 중요하다.

서의학적으로 瘙痒의 發生機轉에 피부장벽의 변화, 중추말초 신경계의 감각 및 여러 매개인자의 활성화가 관련된다고 하였으나, 최근까지 병태생리학적 또는 신경생리학적 기전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한의학계에서도 瘙痒에 대한 연구가 주로 실험적 연구⁸⁾, 임상적 연구⁹⁾로

또는 침구학적 연구¹¹⁾¹²⁾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生理的, 病機的 觀點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黃帝內經』과 역대 醫家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瘙痒의 病因·病機에 대해 고찰하였다.

II. 본 론

1. 皮膚와 皮毛 비교

皮는 皮·肉·筋·骨·脈 五體 중의 하나다. 일반적으로 皮膚하면 皮毛를 포함하는 것으로 또는 구별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內經』에 肺主皮膚는 있어도 肺主皮膚는 없다. 물론 皮毛는 皮와 毛, 皮膚는 皮와 膚의 합성어다. 皮膚瘙痒을 이해를 위해서는 피부 부위 명칭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들 부위를 字意를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皮는 『說文解字注』¹³⁾에 “剝取獸革者, 謂之皮. 凡皮之屬皆從皮”, 『萬病回春』¹⁴⁾에서 “皮, 被也. 被履體也”라 하여 짐승 가죽을 찢는 가죽으로 인체 중에서 덮을 수 있는 부위 즉, 가장 겉부위로, 皮之屬은 모두 皮로 통칭한다. 毛는 『說文解字注』¹⁵⁾에 “眉髮之屬及獸毛也. 象形. 凡毛之屬皆毛”, 『萬病回春』¹⁶⁾에 “毛, 貌也, 冒也. 在表所以別形貌, 且以自冒復也”라 하여 눈썹·머리카락에 난 털과 짐승의 털로, 모양을 형상했으며, 신체를 덮는 것으로, 毛之屬은 모두 毛로 통칭한다. 膚는 『說文解字注』¹⁷⁾에 “籀文臚, 經藉通用此字”

3) 원종현, 홍승필. 성인과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가려움증의 임상적 특징. 대한피부과학회지, 49(4):325, 2011.

4) 유선애, 김철홍, 윤현민, 이승연. 소양증의 침구치료에 관한 고찰.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2(3):192, 2005.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304, 1985. “諸痛痒瘡, 皆屬於心”

6) 南京中醫學院. 諸病源候論校釋(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38, 559, pp.69-72, 1982.

7) 신경철, 나건호, 이동현, 류충열, 채우석, 윤여충, 조명래. 피부 소양증 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2(3):161, 2005.

8) 최형준.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화피의 효과.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9) 박향기, 채병윤. 피부소양증의 임상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7(2):95-102, 1886.

10) 김경준, 채병윤. 소양성 피부질환에 대한 임상적 고

찰. 대한한의학회지, 15(1):175-82, 1994.

11) 신경철, 나건호, 이동현, 류충열, 채우석, 윤여충, 조명래. 피부 소양증 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2(3):157-163, 2005.

12) 유선애, 김철홍, 윤현민, 이승연. 소양증의 침구치료에 관한 고찰.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2(3):175-97, 2005.

13) 殷玉裁. 四部刊要 說文解字注. 台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p.122, 1983.

14) 龔廷賢. 增補萬病回春. 서울, 一中社, p.28, 1991.

15) 殷玉裁. 四部刊要 說文解字注. 台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pp.398-9, 1983.

16) 龔廷賢. 增補萬病回春. 서울, 一中社, p.28, 1991.

17) 殷玉裁. 四部刊要 說文解字注. 台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p.122, 167, 1983.

라 하였고, 『萬病回春』¹⁸⁾에 “膚, 布也. 布在裏也”라 하여 膚는 살갓으로, 臚와 통용하며, 속에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辭源』¹⁹⁾에서는 “膚는 革외의 薄皮이고, 革은 膚內의 厚皮革라 하여 膚가 革보다 밖에 있다”라고 하였다.

皮膚는 『辭源』²⁰⁾에서 사람과 동물에 있어서 肌肉을 밖에서 싸고 있는 조직이고, 우리말로는 살갓으로, 『東醫寶鑑』에는 皮膚를 腠理라 하는데 津液이 스며 나가는 곳을 腠라 하고, 곁에 있는 곁을 理라 하였다. 皮毛는 피부와 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피지선이나 땀샘 등을 총괄하는 말²¹⁾로, 『素問·效論』²²⁾에 “皮毛는 肺의 습이다. 皮毛는 먼저 邪氣를 받고, 邪氣는 (써) 그 습을 따른다”라고 하여, 肺가 주관하고 肺氣能의 充實과 榮華, 邪氣가 들어오는 곳이다. 김 등²³⁾은 “피부를 동·서의학적으로 비교하면 皮는 표피(epidermis)가 되고, 膚는 진피(dermis)가 되고, 肌는 피하지방층(subcutis)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皮毛는 내·외기의 출입, 호흡, 땀의 분비 등 肺와 관련된 생리기능과 관련있는 용어이고, 皮膚는 『靈樞·刺節眞邪』²⁴⁾에서 “虛邪가 사람에 中해서 … 皮와 膚 사이에서 멩치면 그 氣가 밖으로 發해서 腠理가 열린다”라고 한 것과 같이 皮와 膚는 인체의 表部의 전반에 분포하고 구성하는 층(layer)의 한 명칭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김 등²⁵⁾은 “膚는 肌肉과 皮의 중간에 있어 金과 土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皮와 膚를

비교하여 오행배속하면 皮는 金에, 膚는 土에 배속된다. 따라서 皮膚의 구조상 膚(진피)가 皮(표피)를 자양함은 土生金의 작용이며, 대부분 皮膚를 윤택하고자 하면 肺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脾胃도 같이 다스려야 쥐야 한다. 이는 서양의학에서도 진피의 주성분인 fibroblast가 표피의 주성분인 keratinocyte의 분화와 성장을 조절하는 것과 膚가 皮를 자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이라 하겠다”라고 하였다. 즉, 肺가 金·氣를 주관하고, 脾가 土·血을 주관한다고 보았을 때, 皮와 膚의 관계는 결국 肺·脾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2. 가려움증의 病因·病機

1) 運氣의 태과불급

『素問·至眞要大論』²⁶⁾에서 “諸痛痒瘡, 皆屬於心”이라고 하였다. 王冰²⁷⁾은 “심이 고요하면 통증이 微微하고 심이 조금하면 통증이 심해지니, 모든 端緒의 일어남은 心으로부터 생긴다”라고 하였고, 張介賓²⁸⁾, 姚止庵²⁹⁾은 “熱이 심하면 瘡痛하고, 熱이 미약하면 瘡痒한다. 心은 火에 속하고 그 化는 熱이므로 瘡瘍은 모두 心에 속한다. 赫曦之紀에 그 病은 瘡瘍하는 것은 心邪가 盛하기 때문이고, (반면에) 太陽이 司天할 때 病이 發하면 痛痒한다. (이는) 寒水가 勝했기 때문이다. 火가 盛하면 心이 實하고, 水가 勝하면 心이 虛해짐을 이로써 可히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赫曦之紀 즉, 歲火太過한 戊子·戊寅·戊午·戊申년에는 瘡痛이 발생하고, 戊辰·戊戌년에는 司天인 太陽寒水가 火를 勝해서 痛症이 줄어

18) 龔廷賢. 增補萬病回春. 서울, 一中社, p.28, 1991.

19) 辭源修訂組編輯部. 辭源(縮印合訂本). 香港, 商務印書館, p.1396, 1987.

20) 辭源修訂組編輯部. 辭源(縮印合訂本). 香港, 商務印書館, p.1184, 1987. “人和動物包在肌肉外部的組織”

21) 이선동. 백반증의 한방치료. 서울, 정담, pp.46-7, 1996.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142, 1985. “皮毛者, 肺之合也. 皮毛先受邪氣, 邪氣以從其合也”

23) 김병수, 강정수. 皮膚生理의 原理 研究.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6):1112, 2002.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317, 1985. “虛邪之中人也, … 搏於皮膚之間, 其氣外發, 腠理開, 毫毛搖, 氣往來行, 則爲痒”

25) 김병수, 강정수. 皮膚生理의 原理 研究.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6):1114, 2002.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304, 1985.

27)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聖文化社, p.597, 1994. “心寂則痛微, 心躁則痛甚. 百端之起, 皆自心生. 痛癢瘡瘍, 生於心也.”

28)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p.370, 1982. “熱甚則瘡痛, 熱微則瘡痒. 心屬火, 其化熱, 故瘡瘍皆屬於心也. 然赫曦之紀, 其病瘡瘍, 心邪盛也. 太陽司天, 亦發爲痛瘍, 寒水勝也. 火盛則心實, 水勝則心虛, 於此可見.”

29) 姚止庵. 素問經注節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375, 1983. “熱甚則瘡痛, 熱微則瘡痒. 心屬火, 其化熱, 故瘡瘍皆屬心也. 然赫曦之紀, 其病瘡瘍, 心邪盛也. 太陽司天, 亦發爲痛瘍, 寒水勝也. 火盛則心實, 水勝則心虛, 於此可見.”

들어서 瘡痒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心의 動靜은 그 해의 太過不及 및 司天在泉에 따라 달라지며, (症狀으로) 虛實로 나타난다. 즉, 心實하면 痛癢하고, 心虛하면 痛痒하는데, 결국 痛·痒·瘡은 虛實의 구분만 있을 뿐이지 모두 心으로부터 유발되었기 때문에 “諸痛痒瘡, 皆屬於心”이라 하였다. 孫思邈³⁰⁾도 “사람은 脈·病·診에 虛實이 있다. … 진찰을 할 때 가려운 것[痒]은 虛가 되고, 아픈 것[痛]은 實이 된다”라고 하여 痒을 虛症으로 보았다. 임상적으로도 心氣가 왕성하면 血脈이 피부에 울체되어 紅斑이나 紫斑과 같은 血熱症이 나타나고, 皮膚脈絡이 소통하지 못하면 痛하고, 皮膚脈絡에 혈액이 충분하지 못하면 痒이 나타난다.

한편 六氣太過는 여섯 종의 運氣太過를 가리킨다. 즉, 六化의 太過인데 淫氣라 칭하기도 한다³¹⁾. 『素問氣交變大論』³²⁾에서 “歲火 太過한 해에는 炎暑가 유행하여 金肺가 邪를 받는다. … 심하면 胸中痛, 脇支滿, 脇痛, 膺背肩胛間痛, 兩臂內痛, 身熱膚痛이 浸淫된다”라고 하여, 火 太過年에 金肺가 邪를 받아 金鬱(肺鬱)이 된다고 하였다. 金鬱에 대하여 『中醫運氣學』³³⁾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金鬱의 1) 氣化 특징은 歲火 太過로 火氣가 크게 유행하여 金氣가 울체된다. 邪氣가 肺金을 해치고 수렴하는 氣가 행하지 못하고 長氣만 환해지고, 火氣가 盛하여 샘물은 마르고 만물이 타들어 가게 되고, 2) 氣候 특징은 건조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워져 涼燥가 燥火로 되고, 3) 病機 특징은 肺氣의 宣發과 肅降機能이 失調되는 것을 포함하여

30)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p.397, 1993. “人有三虛三實者, 何謂也 然. 有脈之虛實, 有病之虛實, 有診之虛實. … 診之虛實者, 痒者爲虛, 痛者爲實, 外痛內快爲外實內虛, 內痛外快爲內實外虛, 故曰虛實也.”

31) 양력 지음, 박현국김기욱문재곤 옮김. 中醫運氣學. 서울, 법인문화사, p.223, 2000.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248, 1985. “歲火太過, 炎暑流行, 金肺受邪. … 甚則胸中痛, 脇支滿, 脇痛, 膺背肩胛間痛, 兩臂內痛, 身熱膚痛而爲浸淫.”

33) 양력 지음, 박현국김기욱문재곤 옮김. 中醫運氣學. 서울, 법인문화사, pp.229-30, 2000.

肺의 氣化가 不利해지게 된다.

이로써 金鬱이 되면 치료원칙은 泄之해야 한다. 泄之는 즉 宣泄, 疏利이다. 역대 의가들은 宣肺, 瀉肺, 滲利 등 수많은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 목적은 肺氣를 개선하여 肺와 大腸이 壅閉되는 것을 해결하는 데 두었다. 張介賓은 “金鬱의 병은 收斂, 閉塞, 燥, 塞에 속한다. 그藏은 肺와 大腸에 응하고, 그 주는 皮毛나 聲, 息이고, 그 傷은 氣分에 있다. 그러므로 解表하거나 破氣하거나 通便해야 한다. 무릇 病이 表裏·上·下에 있더라도 모두 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臨證에서 나타나는 肺氣不宣, 痰熱壅肺, 肺氣閉阻, 小便不利 … 등과 같은 것을 開表宣肺, 豁痰瀉肺, 宣肺利氣, 淡滲小便 등의 法으로 모두 치료할 수 있다. 肺의 氣化不利는 火가 太過하여 金이 鬱滯되기 때문이며 心火가 金을 伐하는 病症을 대부분 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譫語, 狂亂, 咳嗽喘息, 숨소리가 거칠고, 血尿·血便이 그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肺氣가 막히는 이러한 病症은 運氣氣化의 이상이라는 원인에 근거하여 心火를 承制하고 肺氣를 돕는 것만이 上策이다. 이것이 ‘金鬱泄之’하는 원래의 취지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肺氣를 宣泄하면 울체된 肺氣가 虛해진다. 이 이외에 肺金이 時令을 담당할 때를 파악하고 金鬱이 발하는 時期를 이용하여 억울된 肺氣를 일으켜 세워야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 樓英³⁴⁾도 “皮膚痛은 모두 火邪가 肺를 傷한 것에 속한다. 經에서 이르길, 少陰이 在泉 (=卯酉年)하면 熱이 勝한 바를 넘쳐서[淫] 寒熱, 皮膚痛하고, 少陰이 司天 (=子午年)하면 火가 勝한 바를 淫해서 熱上, 皮膚痛하고, 少陰이 復하면 咳, 皮膚痛하니 寒으로써 다스림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少陰司天에는 火淫이 勝하고, 少陰在泉에는 熱淫이 勝한다고 하여, 司天在泉

34) 樓英. 醫學綱目(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1175-6, 1987. “皮膚痛屬心實. 經云, 夏脈者心也. 夏脈太過, 則病身熱膚痛爲浸淫. [運氣] 皮膚痛皆屬火邪傷肺. 經云, 少陰在泉, 熱淫所勝, 病寒熱皮膚痛. 又云少陰司天, 火淫所勝, 熱上皮膚痛. 又云, 少陰之復, 咳, 皮膚痛, 治以諸寒是也.”

에 따라 火·熱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皮膚痛은 少陰의 司天·在泉·復과 관계없이 나타나며, 치료는 寒으로써 한다고 하였다.

2) 六氣의 침입

피부의 목적은 正氣를 받아들이고 雜氣는 방어서 臟腑를 보호하는 것이 主務다³⁵⁾. 반면에 皮膚는 인체의 방어막과 같아서 외부에서 邪가 침입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이다. 때문에 『素問·湯液醪醴』³⁶⁾에 “무릇 병이 始生함은 지극히 작고 지극히 精微롭지만 반드시 먼저 피부에 들어가 맺힌다”라고 하였다. 『素問·調經論』³⁷⁾, 『素問·繆刺論』³⁸⁾ 등을 통해서 邪의 전변에 대한 大綱을 살펴볼 수 있는데, 邪는 皮毛→孫脈→絡脈→腸胃→五臟 順으로 들어간다.

『靈樞·刺節眞邪』³⁹⁾ “一脈에 수십 가지 병이 생기는데, 아프거나, 癱하거나, 寒하거나, 熱하거나, 가렵거나, 저리거나, 不仁하는 등 변화가 무궁한 것은 모두 邪氣가 생한 바이기 때문이다. 虛邪가 사람에게 中하면 몸을 떨고 身形을 움직이고 毫毛가 일어나서 腠理를 피친다[發]. 虛邪가 깊게 들어가서 안에서 骨을 잡아매면 骨痺가 되고, ... 皮와 膚 사이에서 잡아매면 그(衛)氣가 밖으로 퍼져서 腠理가 열리고, 毫毛가 흔들려서

(邪)氣가 왕래하게 되면 痒이 된다”라고 하였다. 즉, 痒은 虛邪가 체내 깊어 들어갔다 骨→筋→脈을 거치면서 骨痺·筋攣·癱 등을 야기하고, 肉에 들어와 衛氣와 상박해서 眞氣가 去해서 虛寒해졌을 때 皮膚之間에 들어와서 생긴다.

한편 孫思邈⁴⁰⁾은 “소아 瘙癢痛은 어렸을 때 熱이 盛해 極에 달했는데, 몸에 風을 맞아 風熱이 相搏해서 얻는다”라고 하여 瘙癢이 단순히 風熱相搏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熱이 極盛한 어떤 病症이 선행된 상태에서 風을 맞아 생긴다고 하였다. 여기서 이전에 熱이 극성한 상태는 앞서 언급한 歲火太過 또는 고열을 수반하는 熱性疾患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孫思邈⁴¹⁾은 “風邪가 肌中에 客하면 肌가 虛해져서 眞氣가 발산하고, 寒이 미쳐 皮膚를 搏해 腠理가 밖으로 퍼져서 毫毛가 열려 淫氣가 그곳으로 妄行하면 痒이 된다. 따라서 風疹에 가려움을 금는 것은 다 이 때문이다”, 巢元方⁴²⁾은 “肺는 氣를 주하고 外候는 皮毛다. 脾는 肌肉을 주한다. (肺)氣가 虛하면 膚腠가 열려서 風濕이 乘한 곳이 되어, 안에서 熱하면 脾氣가 따뜻해지고, 脾氣가 따뜻해지면 肌肉에서 열이 난다. 濕과 熱이 상박해서 頭面身體 모두에 瘡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들 내용으로 볼 때 瘙癢은 외부 風寒 또는 風濕으로 인해 腠理가 열리고, 이를 틈타 淫氣가 들어오고, 내부의 熱과 결합하여 瘙癢·瘡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그밖에 蟲·毒·血虛 風燥·肝腎不足 등도 瘙癢의 원인이 된다⁴³⁾.

35) 송점식. 의학집요. 대전, 문경출판사, p.79, 1991.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49, 1985. “夫病之始生也. 極微極精, 必先入結於皮膚.”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218, 1985. “風雨之傷人也. 先客於皮膚, 傳入於孫脈, 孫脈滿則傳入於絡脈, 絡脈滿則輸於大經脈.”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224, 1985. “夫邪之客於形也. 先舍於皮毛. 留而不去, 入舍於孫脈. 留而不去, 入舍於絡脈. 留而不去, 入舍於經脈. 內連五藏, 散於腸胃, 陰陽俱感, 五藏乃傷. 此邪之從皮毛而入, 極於五藏之次也.”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317, 1985. “黃帝曰, 有一脈生數十病者, 或痛, 或癰, 或熱, 或寒, 或痒, 或痺, 或不仁, 變化無窮, 其故何也 岐伯曰 此皆邪氣之所生也. ... 虛邪之中人也, 洒淅動形, 起毫毛而發腠理. 其入深, 內搏於骨, 則爲骨痺. 搏於筋, 則爲筋攣. 搏於脈中, 則爲血閉不通, 則爲癰. 搏於肉, 與衛氣相搏, 陽勝者則爲熱, 陰勝者則爲寒, 寒則眞氣去, 去則虛, 虛則寒. 搏於皮膚之間, 其氣外發, 腠理開, 毫毛搖, 氣往來行, 則爲痒. 留而不去, 則痺. 衛氣不行, 則爲不仁.”

40)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p.77, 1993. “治小兒病風瘙癢痛如疥, 搔之汁出, 遍身瘡癩如麻豆粒, 年年喜發, 面目虛肥, 水足乾枯, 毛髮細黃, 及肌膚不光澤, 鼻氣不利. 此則少時熱盛極, 體當風, 風熱相搏所得也.”
 41)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p.319, 1993. “風邪客於肌中則肌虛, 眞氣發散 又被寒搏皮膚, 外發腠理, 開毫毛, 淫氣妄行之, 則爲痒也. 所以有風疹搔痒, 皆由於此”
 42) 南京中醫學院. 諸病源候論校釋(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957, 1982. “肺主氣, 候於皮毛, 脾主肌肉. 氣虛則膚腠開, 爲風濕所乘, 內熱則脾氣溫, 脾氣溫則肌肉生熱也. 濕熱相搏, 故頭面身體皆生瘡.”
 43) 上海中醫學院. 中醫外科學. 香港, 商務印書館, pp.81-2, 101-8, 1981.

3) 계절과의 관계

『素問玉機眞藏論』⁴⁴⁾에 “여름맥이 태과하면 사람이 身熱, 膚痛하고 (결국) 浸淫⁴⁵⁾이 된다”라고 하였다.

여름철에 身熱, 膚痛, 浸淫하는 이유에 대해 高士宗⁴⁶⁾은 “心脈이 태과하면 火氣가 밖으로 뜨므로[浮] 人身으로 하여금 열이 나서 살갓[膚]이 아프고, 熱은 膚表를 傷하게 하므로 浸淫이 되고 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다. 浸淫에 대해 吳岷⁴⁷⁾은 “열이 去할 수가 없어서 浸漬해서 淫해진 것으로 邪熱이 점차 깊어짐을 이르는 것으로, 지금의 蒸熱이 낫지 않음이다”라고 하였고, 張介賓⁴⁸⁾, 馬蒔⁴⁹⁾은 皮膚痛이 전신에 두루 流布된 것이라 하였고, 姚止庵⁵⁰⁾은 “火가 肺를 疇박해서 땀이 된 것이다”라고 하였고, 巢元方⁵¹⁾은 “浸淫瘡은 心家에 風熱이 있어서 肌膚에서 發한 것이다. 초기에는 생기는 것이 매우 작고, 먼저 가렵고 나중에 통증이 있고 나서 瘡을 이룬다. 진물이 나서 肌肉을 浸潤하고, 浸淫이 점차 蔓延·擴大되어 전신에 퍼진다. ... 이와 같이 점점 증

가하고 넓게 확대되므로 浸淫이라 이름한다”라고 하였다. 결국 浸淫은 여름철에 心火가 태과해서 외부로 淫氣가 넘치면 身熱·膚痛하게 되고, 피부에 火熱이 극성해지면 浸淫(瘡)이 발생하게 되는데, 浸淫이 전신에 퍼지면 땀과 함께 瘙痒이 발생하게 된다. 孫思邈⁵²⁾은 “浸淫瘡者, 淺, 搔之蔓延長不止”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라 하겠다.

서양의학에서도 아토피피부염의 피부병변은 대부분 여름과 겨울에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⁵³⁾, 여름철 가려움증이 악화되는 원인으로는 땀과 더운 기운을 고려해야 하며, 겨울철의 경우 피부 건조에 의한 피부장벽 기능의 이상, 그리고 겨울과 여름철 실내 냉난방에 의해 실내 기온과 실외 기온의 차가 커짐으로 인한 급격한 신체 표면의 온도변화가 가려움증의 악화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임상보고⁵⁴⁾와 脈을 같이 한다.

4) 衛氣와의 관계

衛氣는 先天의 下焦, 즉, 腎中 陽氣에서 化生되고, 中焦 脾胃에서 化生된 水穀精微에 의해 부단히 滋養되며, 上焦 肺氣의 宣發作用에 의해 散布되며⁵⁵⁾, 水穀之悍氣로서 그 性이 慄疾滑利하여 확산 분포되는 능력이 매우 강하고, 滲透하는 면적이 매우 넓다⁵⁶⁾. 그러므로 衛氣는 전신의 皮膚, 肌肉, 胸腹 등으로 퍼져나가면서 肌表를 호위하여 外邪의 침입을 방어하고, 汗孔의 開闔을 조절하며 체온을 조절하고, 臟腑를 溫煦케 하고, 皮毛를 潤澤하게 한다⁵⁷⁾.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72, 1985. “帝曰 夏脈太過與不及, 其病皆何如. 岐伯曰 太過則令人身熱而膚痛, 爲浸淫.”

45) 李耕雨. 編注譯解黃帝內經素問(1). 서울, 여강출판사, p.485, 1994. “『說文』‘隨其理而浸漬也(그 리를 따라서 적서 젖어듬이다)’”

46) 高士宗. 黃帝內經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p.146, 1982. “心脈太過, 則火氣外浮, 故令人身熱而膚痛. 熱傷膚表, 故爲浸淫而成瘡”

47) 吳岷. 內經素問吳注. 山東, 山東科學技術出版社, p.87, 1984. “夏脈太過, 則陽有餘, 故令人身熱, 熱不得泄越, 故膚痛. 浸淫, 熱不得去, 浸漬而淫, 邪熱漸深之名, 今之蒸熱不已是也.”

48)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p.132, 1982. “夏脈太過, 則陽有餘而病在外, 故令人身熱膚痛, 而浸淫流布於形體”

49) 馬蒔. 新編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聖文化社, p.134, 1994. “此爲太過病當在外, 令人身熱而膚痛爲浸淫. 蓋心經火熱, 故身發熱, 身發熱故皮膚痛. 浸淫者, 其痛流布於周身也.”

50) 姚止庵. 素問經注節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71, p.1983. “心爲牡臟而主火, 故太過則火盛而爲病矣. 身熱膚痛者, 火外灼也. 浸淫者, 汗也, 火逼肺而爲汗也.”

51) 南京中醫學院. 諸病源候論校釋(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974. “浸淫瘡. 是心家有風熱, 發於肌膚. 初生甚小, 先癢後痛而成瘡, 汗出侵漬肌肉. 浸淫漸闊乃遍體. ... 以其漸漸增長, 因名浸淫也.”

52)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p.321, 1993.

53) Roth HL, Kierland RR. The natural history of atopic dermatitis, A 20-year follow-up study. Arch Dermatol 89:209-14, 1964.

54) 원종현, 홍승필. 성인과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가려움증의 임상적 특징. 대한피부과학회지, 49(4):326, 2011.

55) 홍승원, 임정훈, 이상룡. 營衛氣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경락경혈학회지, 19(2):95, 2002.

56) 대한동의생리학회편. 동의생리학.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p.150, 1993.

5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213, 1985.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衛氣의 방어능력이 저하되면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손상에 대한 회복이 늦어지게 된다. 즉, 衛氣의 腠理開闔이 적절치 못하면 汗出을 통한 체온조절과 체내의 濕, 熱, 風의 배출이 용이하지 않게 되므로 皮膚 燥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체내에 濕熱, 鬱熱 상태가 지속되면 血虛 또는 血瘀를 유발하여 燥症이 발현된다.

병리적으로 外邪가 皮毛를 통하여 인체에 침입을 하면 肺衛症狀이 나타난다. 肺氣가 虛해져서 衛氣가 皮毛에 宣發되지 못하면 皮毛가 憔悴·枯槁해지고, 衛外機能이 저하되어 外感病에 잘 걸리게 된다. 그리고 肺氣가 부족할 경우 皮毛가 영양을 받지 못함에 따라 神經性皮膚炎 등과 같은 일종의 皮膚病이 발생하게 된다⁵⁸⁾.

또한 『內經』에서는 汗구멍을 玄府 또는 氣門이라 하였는데, 이는 汗液을 배설하는 작용뿐만 아니라 肺氣의 宣發과 肅降에 의하여 기체교환작용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衛氣는 汗孔의 開闔을 주관하기 때문에 肺氣가 虛한 상태와 實한 상태에서는 모두 汗液排出의 異常現象이 나타난다. 肺氣가 凝滯되면 衛表가 鬱結되고 막혀 腠理가 閉塞되고 땀이 나지 않는다. 반대로 外邪가 皮毛를 침범할 때도 역시 衛氣가 鬱結되어 肺氣의 宣發에 영향을 끼쳐 肺氣가 不宣된다⁵⁹⁾.

이처럼 衛氣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지 못해 피부가 건조해졌을 때 가려움증이라는 자각현상을 드러내게 되고, 사람은 병변부위를 긁음으로써 병리적 상태를 解消하고자 한다. 즉, 긁는 행위는 일종의 생리적 疏泄行爲라 할 수 있고, 긁는 행위로 증상이 解消가 되지 않고 더 심해지면 병리적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瘙癢治療라 함은 정상적으로 外氣가 들어오고, 內部 津液·血·衛氣·元氣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인체 내외가 평형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5) 血과의 관계

皮膚는 인체의 1/3에 해당하는 循環 血量을 담고 있는 거대한 血管系統으로, 十二經脈, 十二經別, 十五絡脈, 十二經筋, 十二皮部, 奇經八脈, 그리고 孫絡 등 經絡網이 분포하고 있어서 외부의 피부와 내부의 臟腑를 연결시켜주며, 內臟의 거대한 外象이고, 精血을 저장하는 貯藏所⁶⁰⁾.

皮膚에는 標本이 있으니, 皮膚의 本은 血이고, 標는 氣다. 血이 本이 됨은 사람은 五味로 살게 되므로 陰이 근본이 되고, 陰은 血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젊었을 때는 血이 충만하여 피부가 윤택해서 주름이 없고, 老衰하면 血이 고갈되어 피부가 거칠고 주름이 생긴다. 氣가 標가 된다 함은 (드러난) 皮膚의 기능으로, 血이 바탕이 되어 動해서 생한 결과가 皮膚의 標⁶¹⁾. 따라서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몸 속의 혈액이 얼마나 깨끗하고 충만한지, 그리고 얼마나 원활하게 순환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의 피부는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므로, 혈액의 상태에 따라 피부의 건강과 아름다움이 좌우된다⁶²⁾.

唐宗海⁶³⁾는 “諸痛瘡癢, 皆屬於心 이것은 모든 瘡이나, 血分이 응결되어 그 氣가 阻滯되어 氣血이 다투어서 痛하거나, 血虛하여 熱이 생기거나, 兼하여 風氣가 動하여 風火가 相扇하면 痒이 된다는 말이다. 이는 모두 心經 血分에 속하는 病이니 마땅히 和血시켜야 한다. 또한 病이 血分을 말리지 않으면 痛症이 發하지 않으니, 痞·皰·腫 등에는 통증이 없다. 무릇 腹痛肢節痛은 血分과 무관한 것이 아니나 모두 心에 속한다”라고 하여 痛·熱·痒이 모두 心經 血分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60) 양력 지음, 박경남, 김남일, 김정규 옮김. 中醫疾病豫測學. 서울, 법인문화사, p.225, 2001.

61) 송점식. 의학잡요. 대전, 문경출판사, p.77, 1991.

62) 김경신, 조가영, 김덕희, 김병수. 한방 피부 진액 변증론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2):41, 2011.

63) 唐宗海. 中西匯通義經精義. 목과도, 서울, p.162, 2000. “諸痛瘡癢, 皆屬於心. 此言諸瘡, 或血分凝結於阻滯其氣, 氣與血爭則痛. 或血虛生熱, 兼動風氣, 風火相扇則痒. 皆屬心經血分爲病, 治宜和血. 又凡病不干血分, 皆不發痛, 故痞皰腫等均不痛, 凡是腹痛肢體痛, 蓋無不關於血分, 故皆屬心.”

司開闔者也.”

58) 김완희, 최달영.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p.251, 1985.

59) 羅昌洙 외. 한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pp.229-30, 2001.

며, 특히 病은 血分을 간섭하지 않으면 痛症이 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素問·五藏生成』⁶⁴⁾에서 말한 “諸血者, 皆屬於心”과 상통하는 의미이다.

血虛狀態에서 혈관 밖 부분에 津液이 혈관 안으로 스며 들어와서 혈액의 부족을 보충하게 되어 진액의 결핍을 만들어 진액이 肌肉과 孔竅에 영양을 충분히 주지 못하면 皮膚乾燥, 小便量の減少, 便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혈액이 瘀滯되어 순환이 잘 안되면 津液이 널리 흩어져 퍼져 나가는 것도 장애가 생겨 皮膚 肌膚가 진액의 영양을 받지 못하여 皮膚가 건조하고 비늘이 떨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며 심하면 肌膚가 거북등 같이 굳어지는 증상이 생긴다⁶⁵⁾.

皮膚瘙癢은 대체로 虛症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血이 肌膚와 膜理를 영양하지 못함으로 인해 熱이 鬱滯되고 生風生痒하거나, 脾胃의 虛症으로 인한 濕熱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유선애 등⁶⁶⁾은 이에 대한 한의학적 치법으로 滋陰補血을 우선하며, 피부에 熱이 鬱滯되어 生風生痒할 때는 清熱疏風涼血을, 脾肺氣가 不通하며 作痒할 때는 發散風濕補氣血補陽을, 衛氣가 不和하여 實한 경우에는 調氣和血散鬱을 제시하였다.

6) 魄·情緒와의 관계

神은 陰陽이 조화된 것으로 水와 火가 조화된 성질의 血이 神이라는 생명의 신비를 지니고 脈에 존재한다. 사람의 몸에는 心이 사람의 君이 되어 이를 통솔한다. ... 무릇 臟腑의 動함은 모두 神의 힘이다⁶⁷⁾. 神은 다시 魂·魄, 陰陽으로 구별되는데, 이는 心神 활동을 양면으로 나누어 관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魂·魄은 각성상태가 아

닌 무의식상태에서 활동하는 정신작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결국 이들의 出入往來가 心으로 통합되어 외부환경의 자극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반응하게 된다⁶⁸⁾.

『黃帝內經』에서는 『素問·六節藏象論』⁶⁹⁾, 『素問·宣明五氣』⁷⁰⁾, 『靈樞·本神』⁷¹⁾, 『靈樞·本神』⁷²⁾ 등의 篇에서 肺가 魄을 주함을 언급하고 있다. 張志聰⁷³⁾은 “魄은 이에 陰의 精이 생한 바”라 하였고, 黃元御⁷⁴⁾는 “精은 陰液의 순수한 것으로 그 근본을 궁구해보면 실제로는 魄에서 생긴다. 魄은 半陰으로써 純陰을 생하면 精이 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并精出入하는 것을 魄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葉霖⁷⁵⁾은 “魄은 陰의 精이고, 形의 靈이다. 肺主氣는 본디 陽이고, 陰魄을 藏한다. 陰은 陽에서 생한다”라고 하였고, 王琦 등⁷⁶⁾은 “精은 선천의 本이고, 魄은 并精而出入하므로 인체의 후천적 본능과 관련된다”라고 하였다.

魄은 魂에 比해서 陰이며, 形質인 精을 따라 움직이며, 能動能作하여 痛痒의 감각이 이로 말미암아 느껴진다. 그 기능은 初生時의 耳目을 통한 知각과 手足運動, 啼哭 등 사람의 감각 및 감각과 연결된 여러 반응과 유관하며, 본능적인 동작과 정신현상, 즉 귀의 청각, 目的 시각, 皮膚의

6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39, 1985.

65)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 개정판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p.171. 2008.

66) 유선애, 김철홍, 윤현민, 이승연. 소양증의 침구치료에 관한 고찰.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2(3):175-197, 2005.

67) 대한동의생리학회편. 동의생리학.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pp.278-9, 1993.

68) 이충열, 홍무장. 동의학에서의 인지과정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학회지, 5(1):52, 1990.

6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36, 1985. “肺者, 氣之本, 魄之處也.”

7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92, 1985. “五藏所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 是謂五藏所藏.”

7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68, 1985. “並精而出入者, 謂之魄.”

7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69, 1985. “肺藏氣, 氣舍魄.”

73) 張志聰. 素問集註. 서울, 大成文化社, p.210, 1994. “竝精而出入, 謂之魄. 魄乃陰精所生, 肺爲陰臟, 故主藏魄.”

74)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524, 1990. “精者, 陰液之粹也. 而究其根本, 實生於魄, 魄以半陰而生純陰, 則精盈焉. 故并精出入者, 謂之魄.”

75)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70, 1981. “肺藏魄者 魄乃陰之精 形之靈也 ... 肺主氣 本陽而藏陰魄 陰生於陽也.”

76) 王琦 等.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p.129, 1983.

冷熱痛覺 등의 감각, 수족사지의 동작, 嬰兒가 울어대는 것이나 젖을 빠는 것 등을 주관하는 것을 주관한다. 形이 強健하면 魄이 건강하다 하여 形質과 더 유관하며 그래서 精이 충족되면 體가 건강하게 되고 魄이 온전하게 되는데 魄이 온전하게 되면 감각이 영민해지고 동작이 정확해진다⁷⁷⁾. 따라서 한의학에서 자각증상들은 정신을 담당하는 오장의 작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중 가려움은 肺·魄과 관련이 있다.

皮毛의 각종 기능은 체표에 유포되어 있는 衛氣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靈樞·本藏』⁷⁸⁾에서는 “衛氣는 分肉을 따뜻하게 하고, 皮와 膚를 채우고, 腠理를 살찌우고 開闔을 담당한다”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靈樞·邪客』⁷⁹⁾에 “衛氣는 낮에는 陽에서 行하고, 밤에는 陰에서 行한다. 항상 足少陰之分 사이를 따라 五臟六腑에서 行한다”, 『靈樞·衛氣行』⁸⁰⁾에 “衛氣의 운행은 항상 足少陰을 따라 腎에서 注하고, 腎은 心에서 注하고, 心은 肺에서 注하고, 肺는 肝에서 注하고, 肝은 脾에서 注하고, 脾는 다시 腎에서 注한다”라고 하여 衛氣는 밤에 五臟六腑를 운행한다. 衛氣가 허약하면 邪가 들어오기 쉽고, 邪가 들어오면 衛氣의 운행에 따라 밤에 안으로 들어가 五臟六腑에 영향을 주고, 五臟六腑 중에 肺의 魄이 邪의 침입을 인지하고 痛癢의 감각을 肺系中 가장 末端인 皮膚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靈樞·淫邪發夢』⁸¹⁾에 “正邪는 밖으로부터 안으로 침습하여 아직 일

정하게 머무는 곳이 정해지지 않아 반대로 藏에서 넘치면[淫] 일정한 곳에 고정되지 않아서(正邪가) 營衛와 더불어 행하면 魂魄이 飛揚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편히 잘 수 없게 하고 꿈을 많이 꾸게 한다. 邪氣가 府에 넘치면[淫] 밖에서는 有餘한데 안은 不足하고, 邪氣가 藏에 넘치면[淫] 안에서는 有餘한데 밖은 不足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靈樞·本神』⁸²⁾에 “肺가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없으면 魄을 傷한다. 魄은 傷하면 미치고, 미치면 뜻[意]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의 皮革은 타고, 털은 시들고 色은 夭한다. 여름에 죽는다”라고 하여 喜樂은 心의 정서인데 喜樂이 無極하면 즉, 心이 肺를 克하면 肺의 魄이 傷해서 神이 흩어지면 皮膚가 憔悴해진다고 하였다. 이는 정서도 皮膚·피모에도 영향을 미침을 설명한 것이다.

서양의학에서도 특정한 피부상태나 질병이 심리적 반응 패턴에 의해 야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예를 들면 빨갛게 되고, 부어오르며, 가렵고 진물이 나는 피부의 습진은 정서적인 자극과 관련이 있다. 충혈과 가려움은 그 부위에 비정상적인 혈류들이 흘러들어옴을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에, 진물이 나는 것은 피부세포들이 진물 생성속도를 증가시킨 결과이다. 유전적으로 습진 발생성향이 있는 사람에게 정서적 스트레스는 피부 세포들이 방출하는 진물의 양을 증가시키고 반면에 이완은 그것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보고⁸³⁾도 있다⁸⁴⁾.

III. 결 론

『黃帝內經』을 비롯한 歷代 醫書 및 註家를 중

77) 金恩善. 腦와 心, 神의 상관성에 대한 문헌적 연구. 대구한의과대학 대학원, p.31, 1991.

7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213, 1985.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開闔者也.”

7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298, 1985. “衛氣者 … 晝日行於陽 夜行於陰 常從足少陰之分間 行於五臟六腑”

8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324, 1985. “衛氣之行 … 常從足少陰注於腎 腎注於心 心注於肺 肺注於肝 肝注於脾 脾復注於腎”

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202, 1985. “黃帝曰, 願聞淫邪泆衍, 奈何. 岐伯曰, 正邪從外襲內, 而未有定舍, 反淫於藏, 不得定處, 與營衛俱行, 而與魂魄飛揚, 使人臥不得安, 而喜夢. 氣淫於府, 則有餘於外, 不足於內. 氣淫於藏, 則有餘於內, 不足於外.”

8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68, 1985. “肺喜樂無極, 則傷魄, 魄傷則狂, 狂者意不存, 人皮革焦, 毛悴色夭死於夏.”

83) 오상덕. 스트레스와 운동. 한국학술정보, p.28, 2002.

84) 김은희. 스트레스와 피부상태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항상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2004.

심으로, 瘙痒에 대한 病因·病機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瘙痒은 心, 心血, 心經 血分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발생부위는 皮膚之間, 膚腠, 肌膚, 膚表 등 膚를 포함하는 곳이다.

2. 痛痒·瘡은 모두 心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歲火太過에 火邪를 받아 肺金이 抑鬱되어 발생하며, 痛瘡은 實症, 痛痒은 虛症이다. 『內經』에서 金鬱은 泄之하라고 하였다. 즉, 心火를 承制하고, 肺氣를 돕는 방법을 쓰는데, 開表宣肺, 豁痰瀉肺, 宣肺利氣, 淡滲小便 등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다.

3. 魄은 陰精이 生한 것으로, 能動能作하고 痛痒의 감각을 인지하고, 무의식상태에서 활동한다. 痛痒의 病機는 衛氣가 허약해서 邪가 들어오면 衛氣의 운행에 따라 밤에 안으로 들어가 五臟六腑에 영향을 주고, 五臟六腑 중에 肺의 魄이 邪의 침입을 인지하고 痛痒의 감각을 肺系 中 가장 末端인 皮膚로 전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4. 瘙痒은 내부에서 熱盛極같은 實한 상태나, 脾肺氣虛같은 虛한 상태가 있는 연후에 외부에서 風·寒·濕이 들어와서 서로 결합하여 발생한다. 즉, 內·外部의 不調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결국 皮膚가 건조해져서 血虛, 血瘀가 유발된다.

5. 여름철 皮膚病은 身熱·膚痛·浸淫이다. 浸淫은 瘙痒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름철 피부에 火熱이 極盛해지면 浸淫이 발생하는데, 浸淫이 전신에 퍼지면 땀과 함께 瘙痒이 발생한다.

참고문헌

1.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p.77, 319, 321, 397, 1993.
 2. Reich A, Ständer S, Szepietowski JC.

Pruritus in the elderly. Clin Dermatol, 29:15-23, 2011.
 3. 원종현, 홍승필. 성인과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가려움증의 임상적 특징. 대한피부과학회지, 49(4):325-6, 2011.
 4. 유선애, 김철홍, 윤현민, 이승연. 소양증의 침구치료에 관한 고찰.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2(3):175-97, 2005.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36, 39, 49, 72, 92, 142, 218, 224, 248, 304, 1985.
 6. 南京中醫學院. 諸病源候論校釋(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38, 559. pp.69-72, 1982.
 7. 신정철, 나건호, 이동현, 류충열, 채우석, 윤여충, 조명래. 피부 소양증 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2(3):157-163, 2005.
 8. 최형준.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화피의 효과.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9. 박항기, 채병윤. 피부소양증의 임상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7(2):95-102, 1886.
 10. 김경준, 채병윤. 소양성 피부질환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5(1):175-82, 1994.
 11. 殷玉裁. 四部刊要 說文解字注. 台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p.122, pp.398-9, 1983.
 12. 龔廷賢. 增補萬病回春. 서울, 一中社, p.28, 1991.
 13. 辭源修訂組編輯部. 辭源(縮印合訂本). 香港, 商務印書館, p.1184, 1396, 1987.
 14. 이선동. 백반증의 한방치료. 서울, 정담, pp.46-7, 1996.
 15. 김병수, 강정수. 皮膚生理의 原理 研究.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6):1112, 1114, 2002.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68, 69, 202, 213, 298, 317, 324, 1985.
 17.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聖文化

- 社, p.597, 1994.
18.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p.132, 370, 1982.
 19. 姚止庵. 素問經注節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71, 375, 1983.
 20. 양력 지음, 박현국·김기욱·문재곤 옮김. 中醫運氣學. 서울, 법인문화사, p.223, pp.229-30, 2000.
 21. 樓英. 醫學綱目(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1175-6, 1987.
 22. 송점식. 의학잡요. 대전, 문경출판사, p.77, 79, 1991.
 23. 南京中醫學院. 諸病源候論校釋(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957, 974, 1982.
 24. 上海中醫學院. 中醫外科學. 香港, 商務印書館, pp.81-2, 101-8, 1981.
 25. 李耕雨. 編注譯解黃帝內經素問(1). 서울, 여강출판사, p.485, 1994.
 26. 高士宗. 黃帝內經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p.146, 1982.
 27. 吳岷. 內經素問吳注. 山東, 山東科學技術出版社, p.87, 1984.
 28. 馬蒔. 新編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聖文化社, p.134, 1994.
 29. Roth HL, Kierland RR. The natural history of atopic dermatitis, A 20-year follow-up study. Arch Dermatol 89:209-14, 1964.
 30. 홍승원, 엄정훈, 이상룡. 營衛氣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경락경혈학회지, 19(2):95, 2002.
 31. 대한동의생리학회편. 동의생리학.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p.150, pp.278-9, 1993.
 32. 김완희, 최달영.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p.251, 1985.
 33. 羅昌洙 외. 한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pp.229-30, 2001.
 34. 양력 지음, 박경남, 김남일, 김정규 옮김. 中醫疾病豫測學. 서울, 법인문화사, p.225, 2001.
 35. 김경신, 조가영, 김덕희, 김병수. 한방 피부진액 변증론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2):41, 2011.
 36. 唐宗海. 中西匯通義經精義. 목과토, 서울, p.162, 2000.
 37.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 개정판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p.171, 2008.
 38. 이충열, 홍무창. 동의학에서의 인지과정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학회지, 5(1):52, 1990.
 39. 張志聰. 素問集註. 서울, 大成文化社, p.210, 1994.
 4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524, 1990.
 41.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70, 1981.
 42. 王琦 等.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p.129, 1983.
 43. 金恩善. 腦와 心, 神의 상관성에 대한 문헌적 연구. 대구한의과대학 대학원, p.31, 1991.